“불교동아리서 유익한 대학생활 어때?”

서울 동덕여대 ‘향연’ 신입 회원 모집 현장

인형 탈 쓰고 새내기에 홍보
목탁 체험·굿즈 선물에 호응
대부분 템플스테이 관심 커
“친근한 불교 이미지가 장점”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새학년, 새학기 출발로 설렘 가득한 새내기들 사이로 ‘똑 똑 또르륵’ 목탁소리가 울려 퍼졌다. 단숨에 눈길을 사로잡은 이들은 새학기를 맞아 회원 모집에 나선 서울 동덕여대 불교동아리 ‘향연’ 법우들. 신기한 목탁소리에 하교를 하던 새내기들이 자연스럽게 ‘향연’ 홍보부스로 발길을 옮겼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주현우, 이하 대불련)가 새학기를 맞아 젊음의 활기가 넘치는 대학 캠퍼스에서 신입회원 모집에 한창인 가운데, 서울 동덕여대 불교학생회 향연(회장 김도윤)도 3월 12~13일 이틀에 걸쳐 교내 운동장에서 새내기 회원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새내기 법우 만들기에 선배 법우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들이 대거 등장했다. 인형 탈을 쓰고 동아리 홍보물과 부처님 말씀이 담긴 브로슈어를 전달하는가 하면 목탁 체험으로 발길을 멈추게 했다. 또 즉석에서 솜사탕을 만들어 선물하고 다양한 굿즈를 안겨주는 등 여러 홍보 수단이 총동원됐다.

캠퍼스에서는 생경한 목탁소리에 “한 번 쳐보고 싶다”는 요청이 줄을 이었다. 허유정(컴퓨터학과23) 학생은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는 소리였다”면서 “명상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목탁소리에 이끌려 부스를 찾은 새내기들에게 향연 법우들은 전국 대학생 불교동아리 법우들과 함께하는 템플스테이, 봉사활동, 지도법사 청빈 스님과 함께하는 정기법회, 대불련 연합활동 등 불교동아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친절하게 설명했다.

“108배, 새벽예불, 발우공양 등 불교동아리에서 다채롭게 체험할 수 있어요. 연합동아리로써 전국의 학생들과 연등회, 캠프 등에서 재미있는 추억과 인연도 만들 수 있답니다.”



성신여대 불교동아리 ‘향연’의 동아리 홍보활동. 새내기들은 템플스테이를 비롯한 불교문화에 큰 관심을 보였다.

향연 법우들의 설명을 듣던 새내기들은 템플스테이에 큰 관심을 보였다. 김다은(정보통계학부24) 학생은 “템플스테이에 관심이 많아 예약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쉽지 않았다”면서 “동아리 활동을 하면 방학이나 행사 때 템플스테이를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이 끌린다”고 말했다. 장혜원(디지털공예23) 학생도 “템플스테이와 정기법회에서 명상체험을 하고 싶다”면서 “불교도 알고 힐링도 하는 시간이 될 것 같다”고 기대했다.

김도윤 향연 회장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불교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홍보부스 설치 전 SNS에 꾸준히 포스팅한 결과 온라인 홍보만으로 신입부원 10여 명이 입회하는 성과를 얻었다”면서 “친근한 이미지가 강한 만큼 불교활동뿐 아니라 다양한 봉사프로그램과 전국 네트워킹 등을 새내기들에게 적극 어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홍보부스에는 향연 선배이자 대불련 58년차 중앙회장 윤정은 법우가 함께해 더욱 의미가 컸다. 윤정은 전 중앙회장은 “후배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길 바라는 마음에 지원을 나왔다”면서 “많은 대학생 법우들이 불교와 함께하는 대학생활로 부처님과 인연 맺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원욱·금태섭에 ‘상생의 정치’ 강조

총무원장 진우 스님, 개혁신당 정치인 조계종 예방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총선을 앞두고 조계종을 찾은 개혁신당 정치인들에게 ‘상생의 정치’를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3월 1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에서 이원욱 국회의원〈사진〉과 금태섭 최고위원의 예방을 연달아 받고 두 정치인에게 “상생·융화·타협·양보의 정치를 펼쳐 국민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진우 스님은 “극단적인 정치 양극화는 정치를 엉망으로 만들고 국민불안을 유발한다”며 “양보 없는 메마른 정치는 국민만 힘들게 한다”고 현 정치 실태를 꼬집었다. 스님은 이어 “정치에 있어 양극단을 중재하는 중간지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중간지대로서 역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원욱 의원은 “거대 양당의 혐오정치에 실망감을 느끼는 국민이 많다”며 “부처님 법을 따르는 불자로서 진인사대천명의 마음가짐으로 혐오정치 종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금태섭 최고위원은 “부족하지만 정치변화를 위해 과감히 종로구에 출마했다”며 “양 진영의 대립을 중재하고 건강한 정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총무원 기획실장 우봉 스님, 사서실장 진경 스님이 배석했다. 이민우 기자



제7기 포교위원회와 신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대중.

조계종 제7기 포교·신도위원 위촉

조계 · 봉은사 주지스님 등 14명

조계종 포교원(원장 선업 스님)이 시대 변화에 맞춘 포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7기 포교원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포교원장 선업 스님은 3월 1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7기 포교원 위원회 위촉식을 갖고, 포교위원회와 신도위원회 위원 총 1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 임기는 2년이다.

포교위원회는 조계사 주지 담화스님을 위원장으로 중앙종회 포교분과위원장 정운 스님, 전 포교부장 무각 스님, 국제전법단장 정범 스님,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문종 스님, 김영석 포교사단장, 양동효 교법사단장으로 구성됐다.

신도위원회는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이 위원장을 맡았다. 위원으로는 중앙종회의원 설해 스님, 신도시전법단장 도봉 스님,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 포교부장 남전 스님, 주윤식 중앙신도회장, 이상훈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이 위촉됐다.

포교원장 선업 스님은 “포교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원회에서 잘 이끌어 주길 바란다”며 “가지고 있는 좋은 의견을 모아 주시면 포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도위원회 위원장 원명 스님은 “제6기 위원회에 이어 이번에도 중책을 맡게 됐다”며 “올해는 뚜렷한 포교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진우 스님도 친견한 남인도 불교예술

국립중앙박물관의 기획전시 ‘스투파의 숲, 신비로운 이야기’가 4월 14일까지 계속되는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도 전시를 찾아 남인도 불교예술의 장엄함을 느꼈다. 진우 스님과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허운 스님,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중앙종무기관 교역직스님들은 3월 11일 ‘신비의 숲’에서 남인도인들이 바라본 북인도의 부처님 생애, 그 상징인 보리수와 빈 대좌, 법륜을 표현한 예술작품을 관람했다. 사진은 진우 스님이 피프라와 스투파 출토 사리를 친견하는 모습. 이민우 기자 · 사진제공=조계종 홍보국

봉축표어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부처님오신날 봉축위 선정…“사회적 정진 의미”

올해 부처님오신날 봉축표어가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으로 정해졌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진우 스님)는 “불기2568(2024)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표어로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Peace of Mind, Happiness of the World)’을 선정했다”고 3월 15일 밝혔다. 올해 봉축표어는 수행과 명상을 통해 불자와 국민 모두 마음의 평화와 정신 건강을 지키고, 사회적 정진으로 행복한 세상을 이뤄가자는 의미를 담았다.

봉축위원회는 “종단에서 대중적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국제 선명상대회 등 정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 봉축표어처럼 온 국민이 마음의 안정을 찾고 평화 속에서 행복함을 찾길 기원한다”고 설명했다.



봉축표어와 함께 공개된 연등회 포스터〈사진〉는 화합과 연속성을 주제로 종교, 남녀, 국내외, 계층 등 다름과 차이를 넘어 배려와 화합, 평등의 사회적 포용성을 실천하는 연등회의 가치를 반영했다. 윤호섭 기자

제40기
한마음공생실천과정 교육생 모집

마음의 힘 키우기
인연과 화합하기
달라지는 ‘나’
주인된 삶

한마음공생실천과정은
마음공부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다가오는
것들을 마음공부의 재료로
삼아 믿고 맡기고 지켜보며
나와 내 주변을 긍정적으로
풀어나가는 생활 속
관법 수행입니다.

대 상 : 마음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 누구나
일 정 : 2024년 4월 13일~6월 8일
매주 토요일 오후 1:30~5:30
장 소 : 한마음선원 내 한마음과학원 3층
국제회의실 (주소: 경기도 안양시 경수대로 1282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모집인원 : 총 50명 선착순
신청방법 : 한마음과학원 홈페이지 - hansi.org
수 강 료 : 20만원
문 의 : 031-470-3200/3198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